



5면

전북대, 지역혁신 '빛' 올렸다  
207억 규모 연구센터 현판식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음 2월 26일) 제2499호

대표전화 (063)288-9700

## 리턴매치, 김윤덕 우세 · 김광수 고전

### 21대 총선 - 전주 갑 선거구 판세 엿보기

#### 여론조사 결과, 47.7%나 앞서... 20대 총선과 다른 양상 지역 민심 향방 주목... 민생당 · 미래통합당 바짝 긴장

본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도내 지역 선거구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주 갑 선거구부터 판세를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아니었지만 이번 21대 총선 여론은 민주당의 우세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지난 14일과 15일 도내 언론사 등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나타난 결과는 민주당의 우세였다.

코리아리서치에 따르면 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는 61.3% 민생당 김광수 예비후보는 13.0% 정의당 염경석 예비후보는 4.9%로 조사됐다.

특히, 김윤덕 예비후보는 김광수 예비후보 보다 47.7% 앞선 차이를 보였다. 이렇다 보니 민생당과 미래통합당 등은 바짝 긴장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푸경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여론조사로 나타난 결과는 지난 20대 총선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주갑 선거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김윤덕 민생당 김광수 두 후보가 경쟁을 했던 곳이다.

결과는 김광수 후보가 조선의 김윤덕 후보에게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은 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의 높은 지지를 속에 지난 20대 총선결과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높다.

먼저 김윤덕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4년 동안 지역민심을 닦아 온 것으로 보인다. 공약 발표를 보면 ▲ '전주 특례시

법안 발의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에 1개의 특례시 지정) ▲ 아중호수 관광단지 개발 ▲ 평화동 교도소 이전을 완전히 마무리 ▲ 조선역사문화단지 조성으로 제2의 전통문화 전주 전성기를 열겠다. ▲ 소상공인 돕는 포용금융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 노후가 즐거운 치매 걱정 없는 동네를 만들겠다 ▲ 청년이 원하는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김윤덕 예비후보는 "아중호수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관심을 더 보인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김 예비후보는 "전주 한옥마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아중호수에 친환경 워터파크와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세계적인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상대 후보자인 민생당 김광수 예비

후보는 지난 18일 공약발표에서 "전주·전북 경제 살리는 '금·광·수' (금융·관광·수소탄소)"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금·광·수 공약의 첫 번째 '금'은 바로 금융중심지 전북, 금융중심도시 전주를 만드는 것으로 대통령의 공약인에도 정부여당의 무책임으로 좌절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하고 "전북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주축으로 '기금운용형 금융중심지'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갑선거구는 민생당 김광수 예비후보의 사수나 민주당 김윤덕 예비후보의 탈환이냐에 관한 포인트에 집중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26 '모의시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26일 앞둔 1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사전투표소(전북도청 대강당)에서 효자동 주민센터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인쇄하며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 전북경영자총협회 노사대학 제9기 원우회 온정나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도내 경영단체의 기부행렬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전북경영자총협회 노사대학 제9기 원우회 회원들이 도내 취약계층의 방역물품 등 지원을 위한 성금 3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 및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영숙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부회장, 노사대학 제9기 박건민 원우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북경영자총협회는 2011년부터 노사대학을 운영하면서 매년 기업체

CEO, 노동조합 간부, 공공기관 노사관계자 등 40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전문가를 배출하고 전라북도도와 함께 지역 내 노사분쟁 등 갈등 상황을 조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박건민 노사대학 제9기 원우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지역 경제 타격이 큰 상황이지만 이웃과의 나눔으로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사대학은 전북경영자총협회

와 함께 도내 기업들과 도민들의 상생을 위한 기부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힘겨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나눔 활동에 앞장서 준 전북경영자총협회와 노사대학 제9기 원우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도내 코로나 10번 확진자 헬스장·고려병원 들렀다

### 이동 동선 공개... 가족·종업원 등 접촉자 9명 음성

전북도내 10번째(전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공개됐다. 10번째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한 후 헬스장과 고려병원 등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 보건당국은 19일 코로나19로 확진된 유아동 '죽도민물매운탕'을 운영하는 A(67)씨의 진술을 통해 조사한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보이기 이틀 전인 5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유아동의 비타민헬스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에 헬스장을 찾았다.

7일부터 오후와 가슴 통증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다. 9일 오후 3시 전주고려병원 호흡기내과와 비타민헬스장을, 10일 오후 10시15분부터 오후 11시36분까지

유아동의 비타민헬스장을 재차 방문했다.

이후 16일에는 전주고려병원 흉기내과를 방문해 흉부 X선 검사결과를 들었다. 당시 검사결과에서는 특별한 코로나19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A씨의 진술로 확인된 이동동선을 토대로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체채취를 진행했다. 현재 A씨의 마주한 가족 2명과 가게 종업원, 고려병원 의사 2명 등 총 9명을 검사했다.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음성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확인된 방문지에 대해 소독작업을 완료하고, GPS 등을 통한 세부이동경로를 확인하는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전북대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삼기자

### 군장에너지·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 '합병'

#### 지배구조 개편, 도약 발판 마련

군산지역 내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기업인 군장에너지가 삼광글라스, 이테크건설과 3사 합병을 결정했다.

군장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삼광글라스의 투자부문과 이테크건설의 투자부문이 3사 합병을 진행, 합병방안이 그룹의 사업주사가 되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탄생한 3사 합병방안은 삼광글라스는 물적 분할을 통해 사업부문을 100% 자회사로 둔 채로 남아있는 투자부문이 군장에너지를 흡수 합병하고 이테크건설로부터 인적 분할한 투자부문은 삼광글라스와 합병하는 형식이다.

기존의 삼광글라스에서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로 이어지는 직렬식 지배구조에서, 군장에너지를 흡수 합병하

는 합병방안을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 중심의 병렬식 지배구조로 변모한다.

이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되면 합병방안은 군장에너지의 본원사업인 정단에너지사업과 함께 그룹 전반의 경영관리를 책임지는 투자부문이 더해져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제고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며 합병방안으로 투자부문을 일원화 해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각 회사별로 분산되어있던 인적, 재무적 자원들을 통합해 사업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돼 그룹 전체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구조 개편으로 각 사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소액 주주들의 투자안정성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k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